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	제공일자	2026. 10. 7. (수)	
	미래모빌리티과장	김신영	803-6360
	배터리융합산업팀장	남상권	803-8790
	담 당 자	황태원	803-8792

대구·전남광주 손잡고 ‘공장에서 일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개발한다!

- ▶ 산업부 소부장 특화단지 협력 모델 선정... 국비 200억 원 확보
- ▶ 대구 구동 모터·배터리와 전남광주 자율주행 기술 결합... GGM 생산현장 실증
- ▶ 핵심부품 국산화율 90% 이상 목표... 지역 자동차부품기업 신시장 진출 기대

대구광역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대구-전남광주 소부장 특화단지 협력모델’이 산업통상부의 ‘2026년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9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국비 200억 원을 투입해 제조 현장에서 부품과 자재를 운반하고 생산 작업을 지원하는 제조 현장 맞춤형 공정 모빌리티(PBM)와 핵심부품을 개발·실증하는 사업이다.

기존 공장용 무인 운반장비(AGV·AMR)가 주로 정해진 경로나 지도에 따라 물건을 옮기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 개발하는 맞춤형 공정 모빌리티(PBM)는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동하면서 부품 운반과 작업, 생산공정 연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은 대구와 전남광주가 각 지역 소부장 특화단지의 강점을 결합하는 초광역 협력모델로 추진한다.

대구는 자동차 전동화 부품 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모터·감속기·인

버터 등 구동 모듈과 배터리 시스템 등 핵심부품 개발 및 PBM 플랫폼 제작을 담당하고, 전남광주는 카메라·라이다(LiDAR) 등 인지 센서와 자율주행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는다.

개발된 기술은 수요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실제 자동차 생산 현장에 적용해 성능과 안전성, 신뢰성을 검증한다.

사업은 경창산업(주)이 총괄 주관하고 대구·전남광주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해 핵심부품 개발부터 자율주행·인지·제어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PBM 핵심부품 국산화율 90% 이상을 목표로 구동부품, 배터리, 센서, 자율주행 제어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부품개발부터 플랫폼 제작, 성능평가, 실제 생산현장 실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사업 영역을 제조 현장 맞춤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로 확대하고, 생산 현장 실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 진출과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GGM 생산라인의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방산·조선·반도체 등 다양한 제조 산업으로 적용을 확대해 핵심부품 국산화와 수입 대체, 지역기업의 동반성장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실장은 “이번 사업은 대구 자동차부품 기업이 축적해 온 구동 모터와 전동화 부품 기술을 공장용 자율주행 모빌리

티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와의 초광역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이 핵심부품 국산화와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사업 개요(별첨)

2.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현황(별첨)